

2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88.35	↑ 코스닥	802.53
	(+9.15)		(+3.44)
↑ 금리 (미국 9년)	3.294	↑ 환율 (원-달러)	1311.20
	(+0.030)		(+1.10)



## 사람 대신 車 충전, 위험현장 투입 산업경계 허무는 로봇에 미래건다

### ‘로봇사업’ 생태계 구축 총력전

2030년 로봇시장 831억 8000만 원 예상  
현대차그룹, 美 로봇기업 인수 등  
대규모 투자·기술개발 드라이브  
삼성전자도 로봇경쟁 본격 합류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충전기의 케이블을 대신 들어 차량 충전구에 체결해주고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외팔형 전기차 충전 로봇을 공개했다. /현대차그룹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공간에서 4족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로봇이 현장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다닌다. 특히 로봇은 컨트롤러와 열화상 카메라, 방사선 감지 센서 등을 탑재해 눈으로 감지하기 힘든 사각지대나 위험 지역에서 문제가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본부에 이를 알린다.

국내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전자회사와 모빌리티 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전자와 자동차, 통신 등 주력 사업을 벗어나 ‘로봇 사업’을 놓고 진검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현대자동차와 LG전자가 선점한 로봇 시장에 삼성전자가 합류했으며 두산과 한화, 포스코 등도 로봇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로봇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고 다양한 로봇 전문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282억 달러 규모인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2030

년 831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국내 고용 규모는 2021년 3만1000명에서 2030년 3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글로벌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기업 가운데 로봇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기술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AI와 로봇 분야를 5대 미래 핵심 성장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다. 현대차는 2018년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과 2021년 서비스

로봇 ‘DAL-e(달이)’ 등을 선보이며 로봇 개발에 나섰다. 또 ‘로봇 AI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2021년 6월 미국의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주목받았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2족, 4족 보행 로봇은 물론 물류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로봇개’로 알려진 4족 보행 ‘스팟’과 2족 직립 보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을 개발한 회사다.

스팟은 관절을 뒤로 향하는 염소를 모델로 유연하게 움직이고 다양한 지형 이용과 우수한 균형 및 복원력을 갖고 있다. 시각·음향·온도 감지 센서와 스테레오 카메라 등을 탑재했다. 현재 스팟은 기아 공장과 GS건설 등 현장에 투입돼 위험 구간의 유해가스나 열화상을 감지하는 등 안전 관리 등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아틀라스’의 미래를 암시하는 새로운 동작 영상 ‘아틀라스 감을 잡다’를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서 아틀라스는 작업 도구 상자를 들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 목표 위치에 던지고 내려놓는 동작 등 실전 능력을 선보였다.

또 현대차는 전기차를 주차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기술도 공개했다.

(4면에 계속)

/양성호 기자 ysw@metroseoul.co.kr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규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뷰티 1번지’ 명동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뉴스1

## 북적이는 중국인 관광객들 매주마다 2배·3배씩 늘어

### 르포 활기 되찾은 ‘명동’

중 입국자수 전년비 430% 폭증  
상권 상가들 입점 준비로 요란  
상가 공실률 30%대 후반대 유지  
상반기 절반 수준까지 감소 기대

21일 정오,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은 커다란 여행 캐리어를 끄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다. 명동 안쪽에 위치한 숙소로 향하는 사람들이었다. 지난 3년 여 시간 동안 평일 낮 시간대 이곳은 점심을 먹기 위해 나온 주변 직장인들뿐이었다. 골목마다 영업을 중단한 채 방치된 상점은 더욱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엔데믹(풍토화) 1년, 명동의 오늘은 관광객들의 들뜬 기대와 노점을 준비하는 상인들로 들쭉였다.

‘명동’이 살아났다. 텅텅 비었던 상가 건물에 요란한 공사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날 명동 상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사무소 직원 김유균씨는 공사를 마치기에는 빠듯한 날짜에 신경이 곤두서있었다.

김씨는 “관광객들이 주마다 2배, 3배씩 늘어나는 분위기”라며 “고객(상가 점주)이 최대한 빨리 끝내달라고 재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또 다른 점포인 테리어를 했었는데, 같은 때 서너개 점포가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 분기인 2019년 4분기 명동 상권 내 상가 공실률은 4.3% 수준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6.9%

보다 적었다. 그러나 2020년 2분기부터 가속화한 상가 공실률은 2020년 4분기 22.3% 수준(서울 평균 8.8%)까지 치솟은 데 이어 2021년 4분기에는 50.1%까지 기록했다. 상가 2개 중 1개는 비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상가공실률은 지난해 1분기에 40%까지 떨어진 후 30%대 후반을 유지 중이다. 3월 현재 상가의 많은 수가 입점을 준비 중인 만큼 상반기 중 공실률이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권이 살아나는 데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방한 외국인 수가 배경에 있다. 지난 1월 한국관광공사 집계한 방한 외국인 수는 43만4429명으로, 지난해 1월 8만 1851명 대비 430% 늘었다. 명동 상권의 가장 큰 손으로 꼽혔던 ‘유커’ 중국인 입국자 수는 지난 1월 2만4946명으로, 지난 2019년 1월 39만 2814명의 7%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한국 항공 노선 재개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사들도 속속 늘어나는 매출과 플래그십 스토어 개점 소식을 알리고 있다. CJ올리브영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17일까지 명동 내 5개 매장 매출 데이터에서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배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날 CJ올리브영에서 만난 베트남인 관광객 A씨는 “(결그룹)르세라핌의 팬”이라며 르세라핌의 멤버 허윤진이 모텔을 맡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웨이크메이크의 화장품을 구경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 민의 반영”

“노동 약자 건강보호 차원  
확실한 담보책 강구 할 것”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입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건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협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하겠다”며 “특히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금씩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과방위,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 與 퇴장 속 野강행  
▲ 이재명, 민평련 간담회서 “당은 다양성이 본질... 시너지 원천” /사진 뉴스1

▲ 美공군장관 5년 만에 방한... 공군총장과 인태 안보 환경 논의  
▲ ‘MZ 지지율 하락’에 비상경리 與... ‘청년지지 회복’ 대책 부심



▲ 김진표 “선거제 개편 반대 세력, 내년 총선서 심판 받을 것” /사진 뉴스1  
▲ 여당, 야 “굴욕외교” 비판에 “친북·헌법 외교 말고 한 게 있다”

메트로경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오늘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관련기사 L8면